

제29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1월 27일
- 발 의 자 : 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  
이영애·이재숙·조경구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 2. 제안이유

- 일부 자동차 등록 및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도시  
철도채권 매입 면제 기간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이전등록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 연장(안 제3조제1항 단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1,6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1호다목)
-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도급계약 금액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 1,000만원 → 2,000만원
-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액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채권 매입 면제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조항 감면시한 적용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카목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전반)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자동차 등록 및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

면제 기간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매입의무 제도를 개선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3조제1항**은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이전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대구시 리스 차량의 타기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2022년도 기준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붙임 참조]에 따르면, 채권매입의무 면제기간 연장을 통한 채권감소액은 561억원이나, 리스차량 취득세 등으로 확보되는 지방세(1,468억원)와 채권감소에 따른 이자손실분(△9억원), 이자미지급액(14억원)을 포함하여 총 세입 순증액은 1,473억원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이 받는 혜택도 37억원 정도로 나타나 조례 개정을 통해 리스차량 유치 및 이탈방지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와 시민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 연장은 한시적 조치로써 기한 종료 이후 채권매입이 강제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건설공사 계약과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을 계약액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음.
- 이는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장기간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간 560여건, 3억 6천만원 상당(2022년 기준)의 채권매입이 면제되어 소형자동차 구매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매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하여 채권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수입 재원이 일부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채권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제3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감면시한 적용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도시철도법 시행령」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2022.12.20.)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감면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감면시한 종료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그 외 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 지방세입 영향분석

## □ 2022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단위 : 억원)

지 방 세 (리스차량)	채권감소분 (자동차 등록분)	세 입 분 석			
		지방세	채권감소분 이자손실분	채권감소분 이자미지급	세입순증
1,468*	561	1,468	△9	14	1,473

1. 1468억원은 2022년 리스차량 유치로 지방세 달성금액
2. 채권감소분 561억원 2022년 채권감소분(2000cc초과 비영업용 대형제외)은 추산한 금액임.  
(채권면제 조례개정전(2016.3.2.개정) 2천cc초과 비영업용 대형:그외차량비율(4:6)  
2022년 기준 2천이상(374억) : 561억(2천미만 및 기타)(추산분)
3. 채권감소분 정상부과시 연간 예치이자(561억원 × 1.60(12개월 정기예금 예치시))=9억
4. 채권감소분 정상부과시 연간 지급 이자(561억원 × (채권지급 금리 2.5%))=14억

☞ 시민혜택(37억원) : 561억 (채권감소액) × 6.64% (실제 채권매입율, 2023.1.16.현재기준)-  
채권면제 연장으로 일반 시민이 받는 혜택

- 리스차량은 채권면제 미연장시 차량관리상 기존 차량 즉시 이탈가능성 높음

## □ 계약관련 도시철도채권 매출 영향분석

(단위 : 건, 억원)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		계약관련 총발행		2022년 발행규모
건수	발행액	건수	발행액	
564	3.6	1,339	166	563

☞ '22년 도시철도채권 매출 기준 계약관련 매출액 3.6억원 감소

※ 2,000만원 미만 건수 및 발행액은 지방재정 365 및 대구교통공사 계약현황 자료로 산출